

× 1980년 심의위원 칼럼 ×

우주의 섭리

辛 正 一
(유일농원 영업부장)

●지구의 배꼽 - 한반도

1978년도末 현재 지구의 인구는 약 42억만명 / 전세계의 각 국가中 중진국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지구상에서 살 수 있는 적정인구수는 약 30억만명이며 선진국 즉 미국과 같은 생활조건으로 계산하면 적정인구수가 약 15억만명이고, 인도등과 같이 국민 1인당 GNP가 200\$ 수준의 후진국 생활환경을 기준할 때는 그 적정인구수가 약 60억만명이라고 인구학자들은 발표하고 있다. 현존하고 있는 지구상의 인구에서 남자 12억만명과 여자 21억만명이 생산해내는 연간 인구가 1977년 약 6천만명 1978년 약 8천만명, 1979년이 약 1억만명으로 중진국 생활환경속에서의 지구적정인구 약 30억만명선을 이미 훨씬 초과된 상태이고, 서기 2000년대 초반에는 이미 그 인구가 70억만명에 도달하게 되어 200\$년간소득이라는 후진국의 비참한 생활조건으로 생활한다고해도 지구의 적정인구 60억만명선을 추월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40代 사람들이 약 30여년전 국민학교에 다닐 때 고무신이 아까워 손에 들고 맨발로 다녔으며, 짚신을 신고, 춘궁기의 보릿고개를 초근목피로 연명하던—그러한 생활로 되돌아 간다 하여도 앞으로 약 30년 뒤 2,000代 초반에는 이미 그러한 생활조차 위협받는 지구의 적정인구수를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허드슨 연구소장 미래학자 허만·칸박사의 전쟁필유론으로 다섯가지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의 3가지 이론은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 일반인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이 지구상에서 전쟁은 반드시 항상 일어난다. 그 이유는 첫째 인구증가와 공간제한 둘째 자원고갈과 격차심화, 셋째 이질이념과 종교갈등과 같은 것들이다.” (네째와 다섯째 이유는 생략)

위의 세가지 이유들은 우리들도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얼마든지 이해가



간다. 필자가 서두에 논한 인구문제가 그 첫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되고, 세계자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자원이 앞으로 30~40년간 사용할 양밖에 없으며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이면 고갈된다든지, 우리나라의 텅스틴이나 무연탄도 앞으로 25년간이면 모두 없어진다든지 하는 내용이 둘째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하여 주고, 우리나라의 6·25사변이 이 질이념으로 일어난 전쟁의 대표적 예이고, 중동의 종교전쟁등이 바로 세계 이유를 납득시켜주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이유등으로 해서 불행하게도 이 지구상에는 현재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행복한 생활을 파괴할 수 있는 폭발직전의 5대 전쟁발발 화약고가 존재하고 있다. —유럽의 나토(NATO)軍對 바르샤바 동맹군, 중동지역의 종교갈등, 인도양의 제해권 쟁탈을 위한 미·소의 대립, 우스리강의 중·소 국경대립, 그리고 한국의 휴전선—!

지구는 어떻게 生成되었으며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지구와 인류가 생성된 뒤 지금까지의 과정은 어떠하였고 그 나이는 어떠하며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 왔는가? 인류는 과거 멸망했던 적이 있었으며, 멸망했다면 몇번이나 멸망하였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멸망한 뒤 다시 생성된 과정은 어떠하며, 또한 인류와 지구는 앞으로 멸망할 것인가?

지구가 변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륙의 아프리카 대륙내에 새로운 바다가 탄생하므로써 대륙이 갈라지고 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79년도 11月号 참조)는 등의 과학적인 연구자료등에 의하여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 지구의 역사와 그 생성과정에도 어떤 확실한 가정하에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인류의 멸망사에 대하여는 아직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학자들에 따라 그 의견이 여러가지이다.

그러나 인류가 멸망했었던 때가 있었다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론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나 신빙성있는 자료와 이론(理論)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한가지의 중요한 예로서 독일인 오토 하인리히 무흐(Otto Heinrich Much)아틀란티스 대륙에 대한 연구 저서를 들 수 있다.

전설속에 존재하고 있는 신비의 대륙 아틀란티스는 대서양상에 실제로 존재하였으며 서대서양에 충돌한 유성은 지구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고, 지구상의 가장 약했던 지각을 형성하고 있던 아틀란티스 대륙의 바다속 침몰은

무서운 해일과 지구상의 기상격변을 낳았다.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지녔던 아틀란티스 왕국인들은 처참하게 죽어 갔고 구약성서에 노아의 방주로 표현되고 있는 대홍수가 일어났고 지구상은 칠흙같은 어둠과 비와 깨스로 충만된 지옥이 되었고 이러한 환경조건속에서 살아남은 인간은 이미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생물 혹은 동물의 생활로 들어 갔으며 수천년 이러한 환경속에서의 생활은 인간을 완전 백치에 가까운 동물로 변하게 하였고—그 이후 그러한 원시동물이 다시 이성을 찾고 지각을 개발하여 인간화 되기까지 또 수천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내용이다.

인류 역사상 예수 다음으로 위대한 예언가로 인정되고 있는 미셸·노스트라 다무스는 1999년 7의 월에 인류는 멸망한다고 4 행시로 이루어진 그의 저서 “제세기”라는 책속에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본인 五鳥勉씨의 이론—다만 필자의 의견과 반드시 일치한다는 뜻이 아님을 밝혀 둠.) 1550년대에 살았던 불란서 사람 미셸·노스트라다무스는 20세기 말의 현실을 그의 저서속에 많이 예언하여 놓았고, 인류가 멸망하는 원인으로 환경오염과 전쟁등을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으며 혹은 유성충들과 지구의 폭발을 연상할 수 있는 비유도 들고 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을 것인지 혹은 아닌지? 또 그의 표현이 모두 직설적이지 아니고 모든 예언이 그러하듯이 매우 미묘한 은유의 예로 되어 있으며 그가 말한 1999년 7의 월이란 뜻이 과연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기의 숫자를 나타내는지 등의 여러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더욱 연구할 과제로 남아 있다.

현실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상상할 때 낙관적인 견해도 많지만 비관적인 나쁜 요인들이 더욱 많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지구개발의 차원을 지나서 우주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미래를 우주에 두고 있으며, 인류의 에너지자원이 석탄의 시대에서 석유의 시대로 흘러왔듯이 이제 석유의 시대가 지난 뒤에는 기체에너지 혹은 무형에너지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며, 인간의 슬기는 우리들 인류 자신을 결코 파멸로 이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며 충분한 해결방안이 연구될 것이고, 필자의 견해와 同質의 것인지는 모르지만, 인류의 미래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토인비의 세계정부이론이 나타났으며, 인구문제, 전쟁문제, 환경오염문제등은 인간의 지혜로 다스려질 수 있다는등의 낙관

이론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없애 준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좋게만 되어 갈수 있을 것인가? 인구폭발이 염려가 없으며 생활의 격차신화가 갈등을 낳지 않을 것이며, 전쟁이 없을 것이며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우주의 존재질서는 신기할 정도로 동일한 점이 많다. 간단한 존재와 복잡한 존재사이의 질서가 같으며, 생물존재와 무생물존재사이의 질서도 같은 유사성이 많으며 인체의 존재질서나 국가나 사회의 존재질서가 같으며 생물의 세포조직과 우주의 존재양식에 동일한 질서를 내포하고 있다.

우주의 태양계가 생물체의 원자에 비유될수 있으며 태양은 바로 핵이고, 원자가 모여서 세포조직의 세포가 되듯이 태양계가 모여서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가 모여서 세포의 집합체인 세포조직과 같이 우주의 부분적인 존재를 형성되어가고 있다. 은하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현미경속에 나타난 생물체의 세포조직과 그렇게 같을 수가 없다.

한 국가의 도로는 인체의 혈관이고, 인체에 동정맥이 있듯이 사회에는 간선도로가 있고, 실핏줄에 비유할 수 있는 지방도로, 오솔길등이 있다. 인체의 입(口)에 해당하는 상수도가 있고 생물체의 비뇨기관에 해당하는 하수도가 있다. 비뇨기관에서 흘러나오는 배설물이 너무 많으면 그 생물체의 세포조직에 이상이 생긴것이고, 하수도의 배설물이 너무 많으면 그 사회에 이상이 생긴 결과이다.

어느 철학자의 말대로 “존재하는 것은 모두 옳으며” 모든 존재가 우주의 섭리에 의하여 그 질서를 지키고 있다.

지구가 변동하고 인류가 흥망하는 모든 문제는 대우주의 극히 부분적인 존재방식의 변화에 지날 뿐이다. 이러한 존재질서에는 어떠한 것이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존재질서에 어떤 외부의 충격이 있을 때 그 충격의 정도가 자정능력의 능력한계속에 있을 때 그 존재질서는 어느정도의 진통을 겪을 뿐 다시 존재 되어 간다. 그러나 충격의 정도가 점점 심화되어 그 자정능력을 초과하게 될때 그 존재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부분적인 파괴는 연쇄적인 파괴를 낳아 거대한 멸망의 결과로 치닫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또한 꼭 같다. 전세계는 폭발하는 인구로 뒤덮히고 전세계는 콘크리트로 지구의 표피가 밀봉되어 간다. 점점 많아지는 인

간의 입으로부터 더욱 많은 탄산가스가 나오고, 더욱 많아지는 모든 문명의 이기(利器)로부터 더욱 많은 개스와 불순물이 흘러나온다.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줄 땅은 점점 콩크리트속에 막혀간다. 만약 아마존강의 밀림을 없애면 지구 산소공급의 가장 큰 자원처를 상실케 되어 인류를 멸망시킨다. 그러한 행동을 계속 우리 인간들은 “발전”이라는 목표아래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충격의 정도가 지구의 자정능력을 초과하게 될 때 지구생태계의 파괴를 낳아 그 파괴의 시작은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지구를 멸망시켜 갈 것이다. 이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보다 한층 더욱 설득력있게 우리들을 압박한다.

우주의 모든 존재질서에 동일한 유사성이 있듯이 지구의 존재질서도 인체의 존재질서와 동일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지구의 존재질서를 인체와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배꼽

일본=앞치마를 두른 인체의 성기(性器)

중국대륙=심장

남북미와 아프리카=팔 다리

유럽=머리

소련=등짝

스칸디나비아반도와 그린랜드=어깨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륙과 가장 큰 해양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머나먼 옛날 지구가 멸망한 후 다시 재생할 때 한반도는 지구의 모체인 우주에 텃줄을 연결하고 재생의 영양분을 빨아들여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생하기 시작하였다. 멸망할 때가 되면 서서히 죽어가는 지구의 각 부분에서 가장 최후까지 살아남아 지구의 명맥을 유지할 것이고 매우주의 섭리 즉 자정능력에 의하여 다시 지구가 회생할 때 역시 한반도는 그 텃줄을 무한한 우주에 박고 그 재생의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이 지구상에서 회생하는 각 부분보다 가장 먼저 태양의 빛을 받을 것이다.

지구의 오염이나 어떤 충격이 점점 심화되어 존재하는 인류가 지구의 파멸을 느끼게 될 때 세계의 각 국가나 혹은 어떤 단체나 조직등에서 취할 수 있는 길은 단 두가지이다. 그 하나는 발달된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여 지구를 일단 탈출하였다가 수천년이 지난 뒤 다시 재생한 지구에 그들의 자손



들을 돌려보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에 살아 남아 비록 원시인간으로 되돌아 갈지라도 한반도의 토굴속에서 수천년을 지낸 뒤 그들이 자손을 회생하는 지구에 다시 살게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어느 때가 되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한반도 탈취에 대한 대쟁탈전이 벌어지리라.

“무좀아, 무좀아, 너는 왜 발가락사이에 서만 사느냐? 허어! 넌들 뭐 사타구니나 겨드랑이가 좋다는 것을 모를까? 그러나 조상 대대로 땅을 일구고 밭을 갈아 살던 터전을 내가 어찌 떠나겠느냐? 비록 토박하고 나쁜 땅이지만 우리 조상이 뼈를 묻은 여기서 나는 살립니다.” 이것은 필자가 언젠가 칼럼에서 한번 인용한 필명 허어(許魚) 코메디언 권귀옥씨의 오빠—라는 사람의 만화 내용이다.

세계의 문명은 로마에서 발상하여 태양이 가는 방향으로 돌아 왔다. 석탄의 시대인 영국의 시대가 가고, 이제 석유의 시대인 미국의 시대도 그 종말을 고하려하고 있다. 그 문명의 최종 귀착지인 한반도를 중심한 동양으로 태평양을 넘어 건너오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인간적인 배달민족은 창조주의 선택된 인간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찬란한 지구의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현재 지구 역사상에서 1979년으로서 70이라는 숫자는 이제 마지막 간다. 하루밤을 지나고 나면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영킨 1980년대의 미래가 다가 온다.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창조주에게 기도하자

“창조주여!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인간의 본분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히 당신의 위치를 넘보는 교만을 허락치 말으시고 인간이하의 행동을 하는 몰염치를 허락치 말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게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성실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창조주, 당신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